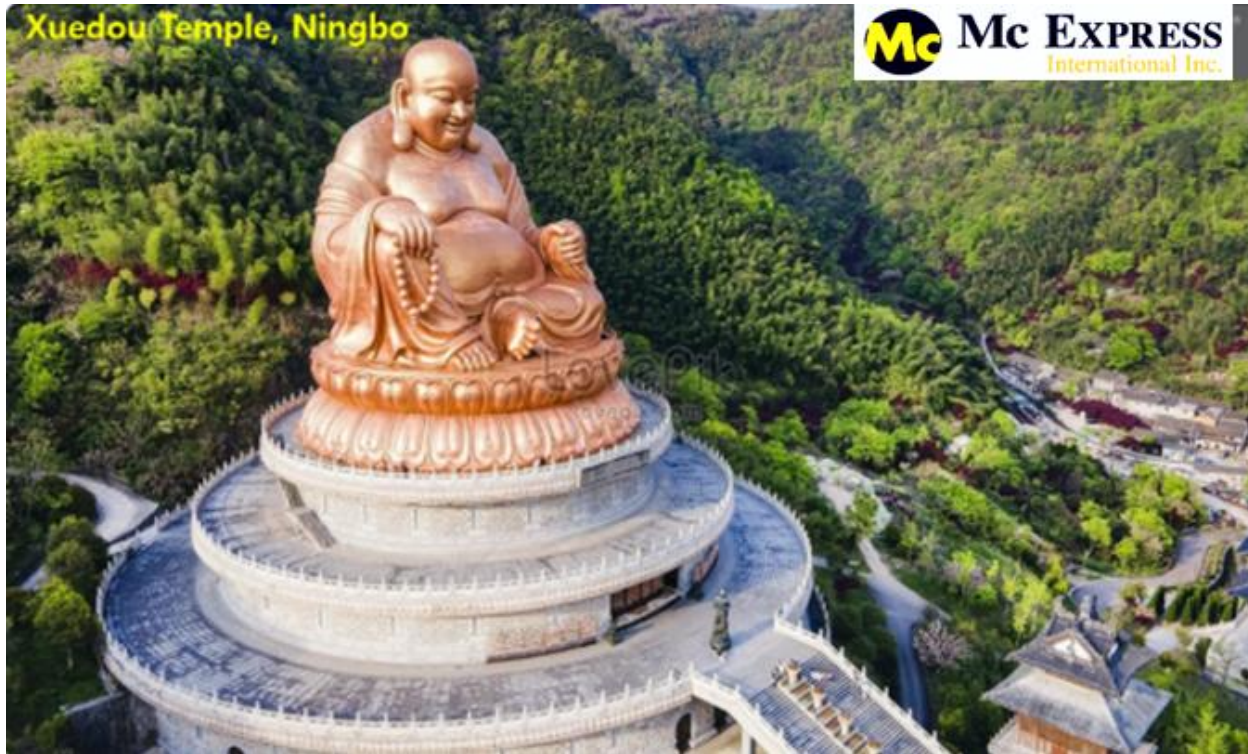


## 2025 년 4 월 1 주차 각 지역 소식



### 🌐상해

- ✔中 테무 모회사 핀뒤뒤,4 분기 성장률 둔화지속
- ✔韩,올해 3 분기 중국단체 관광객에 '비자 면제'

### 🌐태국

- ✔미얀마 강진으로 태국 방콕서 건설 중이던 고층 빌딩 붕괴,중시공사 조사
- ✔저작권 보호원,K-콘텐츠 불법유통 태국 사이트 3 개 접속 차단
- ✔카지노 합법화 법안,27 일 내각 상정
- ✔미국 관세 여파에 일부 자동차 수출모델 생산 연기
- ✔태국 북부 치앙마이 산불 피해확산...대기오염 급 속악화
- ✔한국 길거리 음식이 태국 소매시장에서 치열한 중소기업 전쟁 촉발
- ✔4 월 태국발 부산,인천착 운임 인상,기항지 체선으로 스케줄 딜레이 심화,스페이스 부족 현상,카고 롤-오버 발생,인천항은 선복 감소로 스케줄 조정 문제 지속 발생 중

### 🌐동경

- ✔3 월부터 일본발 국제항공화물 보안제도 엄격화(폭발물검사),현재는 포워더 중심으로 RA 또는 항공사·창고에서 폭발물 검사 실시,올해 3 월부터 검사대상이 카톤 단위로 확대.현재는 외장으로 폭검 실시하고 있지만 전량 개화에서의 안전 확인은 현실적이지 않아, X 선 검사 장치에서의 폭발물 검사 요구

## 🌐하노이

- ✔하노이발 인천착,항공스페이스 공급 원활
- ✔상호관세 피해 줄이자...베트남,LNG·車등 美제품 관세 인하
- ✔자본 잠식 떨친 효성화학,또 매각 카드...베트남법인 살리기 총력
- ✔사료용 옥수수 베트남서 생산해 조달...종자 자급률 50%목표
- ✔K-원전 수출,베트남 등 신흥 시장 공략

## 🌐호치민

- ✔국내 기업,베트남 남북 고속철도 참여 추진...정부 수주지원단 파견
- ✔베트남,자동차·LNG 등 일부 상품 우대 관세인하 추진...美달래기
- ✔브라질 대통령,베트남 국빈 방문...27~29 일

## 🌐대만

- ✔중앙은행,25 년 대만 GDP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 ✔대만 올해 대졸자 평균 초임 149 만원...역대 최고치

## 🌐홍콩

- ✔홍콩 모든 항공사,비행 중 승객 보조배터리 사용 및 충전금지,머리 위칸에 보조배터리 보관도 금지
- ✔홍콩 아트센트럴,100 여개 갤러리와 500 여명 예술가들 참여로 개최
- ✔Time Out 여행문화 전문지,홍콩-세계 최고 대중교통도시 1 위로 선정

## 🌐자카르타

- ✔인니 루피화가치 25 년만 최저,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재정 적자,정치 불확실성 등 복합 요인
- ✔TNI 법 국회 통과,현역 군장교의 정부요직 임명 허용법,포물리즘 회기에 대한 우려로 시위 격화,외국 기업 경영 환경에 악영향
- ✔4 월 한국항 해상,항공운임 전월 요율 유지,보합세
- ✔르바란 연휴 개시(28 일부터 4 월 7 일까지)

## 🌐싱가포르

- ✔제주항공,부산~싱 1 회 증편,주 7 회운항 예정
- ✔롯데쇼핑,싱가포르법인 신설 해외진출 박차
- ✔싱가포르,STEM 기초교육부문 아시아 1 위
- ✔미성년자 성추행 남성,징역 27 개월 태형 5 대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고소득 국가 달성을 위해 장기 구조 개혁 필요성 강조
- ✔정부,도시 대중교통 시스템 확장 계획발표,철도.피더.버스 포함 기존 도시 대중교통시스템 정비,교통 혼잡 줄이고 도시 접근성 개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촉진 목표
- ✔반도체 수출 규제강화,미국 압력에 대응-고급 Nvidia 칩등 중국으로의 유출 방지위해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

## 🌐마닐라

- ✔4 월 1 일 이드 알 피트르 공휴일로 지정
- ✔BICOL 지역 최저인금 4 월 5 일 부터 40 페소 인상

## 🌐심천

- ✔中,세계최대 중고스마트폰 시장...중국폰 인기 상승
- ✔해상-국적선사 심천발 한국착 FCL 4 월운임 인상
- ✔인천항 항공 전자상거래화물 급증으로 스페이스 상당히 부족

## 🌐충칭

- ✔완다그룹, 1 조원넘는 지분동결... 여전한 부채압박

## 🌐샤먼

- ✔텐센트,자체개발 추론모델 '훈위안 T1'출시
- ✔날씨,부두혼잡으로 스케줄 불안정,딜레이 발생
- ✔4 월상반기 한국향 해상운임 인상,샤먼,푸조우,산터우 한국향 장비 공급 정상,동남아향 20GP 부족

## 🌐불산

- ✔비야디,연매출 1000 억 달러 돌파...전기차 시장에서 입지 강화

## 🌐광저우

- ✔25 년 전국도시 연합대학 졸업생 춘계 특별취업행사 종합 취업박람회 광저우에서 개최
- ✔하이커우 해관, 14 년간시행된 하이난성 이도(离岛)면세누적 쇼핑액 금년 3 월중순기준 2,501 억 위안,쇼핑객수는 4,500 만명이상

## 🌐청도

- ✔2 월까지 산둥성 풍력 발전기외 부품 수출 6 억위안,전년 동기 대비 70%증가

## ▶주간 시황 요약

**Container** 북미항로 반등, 공급 조절을 통한 운임 인상

**Bulker**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철광석 수요 감소

## ▶Container

	'25.3.28.	'25.3.21.	증감
SCFI	1356.88	1,292.75	▲ 64
美서안	2,177	1,872	▲ 305
美동안	3,194	2,866	▲ 328
유럽	1,318	1,306	▲ 12
지중해	2,076	2,195	▼ 119
동남아	433	446	▼ 13
중동	1,188	1059	▲ 129
호주	828	755	▲ 73
남미	1,669	1,680	▼ 11
日서안	319	304	▲ 15
日동안	324	310	▲ 14
한국	141	137	▲ 4
동서Africa	3,708	3,634	▲ 74
남Africa	2,172	2,123	▲ 49

\* 美서안, 美동안: \$/FEU, 그 외: \$/TEU 사용



## 종합 SCFI 11 주 만에 반등, 북미항로 운임 인상 효과

1. 북미항로, S/C(연간 계약) 협상 중에 공급 조절이 효과를 보이며 북미 양안 운임 대폭 상승.
2. 향후 임시 결항 외 선속 감속, 계선, 폐선 등을 통해 선사측 운임 방어 노력 지속 전망
3. USTR301, 선박 전배에 용이한 대형 선사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반면, 중소선사들은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 농축산협회, 항만관계자들도 화물의 3 국 우회 증가로 항만산업 위축, 1 차 산업 수출 경쟁력 약화 그리고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하며 부정 견해 피력

## 미주항로      美 양안 반등에 성공, S/C 갱신을 앞두고 선사측 운임 방어에 집중

1. 공급 조절과 동시에 美정책 불확실성으로 홀딩 중이던 대기 선적 수요가 풀리며 운임 반등.
2. 4 월 선복이 타이트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선사들은 추가 GRI 추진 전망
3. 북미에서는 5 월 발효를 목표로 S/C 협상이 활발히 진행 중. 대형 소매사는 전년대비 15~20% 인상된 \$1,600~1,800(서안)에 체결하고 있으며, 중형사는 \$1,800 대, 포워더는 \$2,000 이하를 목표로 논의 지속. 일부 업체는 하반기 약세를 예상하며 계약 연기를 추진
4. 2 월 美주요항 접안 中선박은 190 척, 전체의 19%를 차지. ZIM(50.6%), COSCO(34.7%), CMACGM(25.8%)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HMM, 에버그린은 0 척을 기록. 향후, 글로벌 선사는 中선박의 타 항로 전배 그리고 부대할증료를 통한 비용 보전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유럽항로      4 주 만에 소폭 반등, 유럽과 지중해 상이한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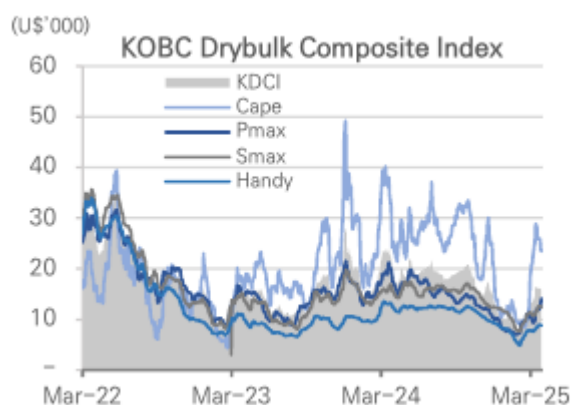
1. 북유럽 항만 혼잡 지속 중에 유럽→지중해항로 대형선 전환이 이루어지며 북유럽은 소폭 반등, 반면 지중해는 부진 계속. 유럽항로는 여전히 수요위축/경기둔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로 4 월 선사의 공급 조절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2. 유로존 경제의 전반적 침체 속에 3 월 물가상승율은 2.4%를 기록하며 2 월(2.3%) 대비 상승.
3. 유럽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자세로 접근 중

## 연근해/기타      소폭 하락, 인트라아시아 항로 재편 활발

- 양회에서 나온 부양책이 기대 이하라는 평이 우세하나, 中정부는 내수 촉진을 통해 5%대성장을 재차 자신. '25 년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아주항로에서는 항로 재편이 활발

## ► Bulker

		3/28	3/21	증감
KDCI		15,859	15,976	▼ 117
Cape	평균	23,445	25,909	▼ 2,464
	F/H	41,295	42,625	▼ 1,330
	T/A	20,001	19,263	▲ 738
	Pac RV	18,533	22,950	▼ 4,417
P'max	평균	14,048	11,836	▲ 2,212
	F/H	17,563	16,049	▲ 1,514
	T/A	10,788	9,380	▲ 1,408
	Pac RV	14,350	11,688	▲ 2,662
S'max	평균	12,440	12,563	▼ 123
	F/H	15,625	15,792	▼ 167
	T/A	13,992	13,807	▲ 185
	Pac RV	12,472	12,805	▼ 333



## Cape 철강 감산은 언제?

1. 계절적 철광석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강 감산 계획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약세 지속
2. 中 컨설팅 업체 에버브라이트 퓨처스에 따르면 중국의 3월 열연 금속 생산량이 전월 대비 56,700톤 증가한 236만 2,600톤으로 집계되는 등 철강 수요가 느린 속도로 증가
3. Hexun Futures 발표(중국 철강협회 자료 인용)에 따르면 3월까지 주요 철강 기업들의 일일 조강 생산량은 275만 톤으로 전월 대비 1.6% 증가
4. 24일 중국 북부 신장 지역 4개 제철소가 일일 조강 생산량 10% 감축 시행 발표. 이로 인해 중국 내 열연 등 철강재 강판 유통가격이 약 2% 상승
5. 신장 지역의 지난 해 조강 생산량은 약 1,291만 톤으로 10% 감축량인 130만 톤은 중국 전체에선 1.3%밖에 되지 않지만 중국 철강 감산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
6. 철강 감산은 단기적으로 철강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제철소들은 제강 마진이 다소 개선될 수 있음
7. 중국 건설 경기의 더딘 회복으로 하락세 예상되나, 철강 감산 구체화 시 제강 마진 개선으로 수요 증가 전망

## **Panamax      북·남미 모두 대두 수출 증가**

1. 아시아 석탄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단기 사료 수요 증가에 따른 남미·USG 지역 곡물 수출 증가에 힘입어 상승세
2. 역대 최대치가 예상되는 브라질 대두 작황 호조로 힘입어 브라질 주요 곡물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5.7% 증가(대두는 약 25.2% 증가)
3. 아르헨티나는 대두, 옥수수, 소맥 등 주요 곡물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전주 대비 28.3% 증가(대두 22.6%, 옥수수 32.4%, 소맥 35.3% 증가)
4. 미국 또한 옥수수, 소맥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두 수출량 증가(전주 대비 56% 증가)에 힘입어 주요 곡물 수출이 전주 대비 약 10% 증가
5. 3.24 일 미국 농업 및 바이오 연료 산업 단체는 미국의 선박 생산이 미국 농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중국 선박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해 줄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 이는 무역 조치 시점의 불확실성으로 미국 농산물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견 때문
6. 주요 석탄 소비국의 산업 수요 감소와 자국 내 재고 급증으로 인도네시아산 석탄 수입수요 감소. 인디아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수요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도네시아 석탄 가격 상승으로 대체 공급원(예: 남아공)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Supramax      인니산 석탄 규제 완화로 수요 증가**

1. USG 곡물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박 공급 증가가 이를 상쇄하며 약보합세
2. 대서양은 대부분 지역에서 물동량 유입과 선박 공급이 부진하였으나 USG 곡물 물동량 증가가 운임을 지지하며 상승세 유지
3. 태평양은 인도네시아 석탄 수입수요가 정체된 가운데 선박 공급이 증가하며 하락세
4. 유럽의 석탄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남아공의 아시아 석탄 공급이 개선되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인도네시아와의 경쟁 심화. 인도네시아는 HBA 의무화로 가격 인하가 불가능한 상황

상기 작성된 자료의 중 일부는 해양진흥공사의 공식 패널로 참여 된 기업으로써 해당 부서의 승인 후 배포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원 상무 / Kai Kim / Managing Director



07642 서울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95 (내발산동, 맥익스프레스 빌딩)

Tel : +82-2-2661-3401(ext.704)

Fax : +82-2-2661-3403

Mobile : +82-10-5139-9985

E-mail : [kai@imcexpress.co.kr](mailto:kai@imcexpress.co.kr)

URL : [www.mcexpress.co.kr](http://www.mcexpress.co.kr)